



공동체 소식



환 주영길 토마스 신부님 영
 신부님, 환영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5대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하시는 신부님, 저희 공동체는 신부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신부님께서 행복하게 사목하시도록 저희 모두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기도지향

주영길(토마스) 신부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 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더럽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무엇에 물들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간직하는 노력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례 예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 신부님 부임미사” 있습니다.

8월 28일(화) 제5대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 주영길(토마스) 신부님이 캔사스에 오셨습니다. 머나먼 이국땅까지 하느님 백성을 위해 오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신부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부임미사 : 9월 2일(주일) 중심미사 때

고생하셨습니다!!

제4대 주임이신 박진성(프란치스코)신부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에 “평협회의” 가 있습니다.

다음주일에는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새신부님과 첫번째 평협회의입니다. 평협 분과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9일(주일) 점심식사 후

“첫” 목·금·토요일 신심행사 및 미사

- 『첫목요일 미사』 : 9월 6일(목) 오전 10시
- 『첫금요일 십자가의 길 및 미사』 : 9월 7일(금) 오전 10시
- 『첫토요일 목주기도 및 미사』 : 9월 8일(토) 오전 9시부터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16일(주일)
- 신 청 : 문석찬 요셉(행사분과장) 및 행사분과원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9	340	165, 174	285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홍순익(마르티노)
	문예나(요 안 나)	김준영(요 셉)
다음주일	차호섭(요 셉)	안동현(프란치스코)
	차서은(세라피나)	안지영(가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안동현(프란치스코)
	김주연(세실리아)	지은경(리 브 가)
다음주일	박혜정(가타리나)	류기범(요 셉)
	김명은(안젤라)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가정당 한접시
다음주일	김시연 엘리사벳, 안혜진 임마꼴라파, 한정숙 마리아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8월 26일>
- 미사참례 : 105명
- 주일헌금 : \$453
- 교 무 금 : \$15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없어 집니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마재 의정부교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마재는 다산 정약종을 비롯한 4형제가 태어난 곳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이다. 4형제 중 정약종은 천주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로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시성 대상자 중 한 명이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84년 성인품에 오른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과 딸 정정혜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의정부교구는 마재에 대한 성역화에 나서 2007년 전통 한옥 양식 성당과 명례방 등을 완공하고, 2008년 성지 축복식을 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신명 4,1-2.6-8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대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화 답 송 :

주 님 당 신 장 막 에 목 을 이 누 구 오 리 까

- 허물 없이 살아가며 의를 하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이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는 사람이외다. ◎
-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를 눈 아래 얹어 보아도 주님을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
- 길미를 받으려도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 이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 없오리다. ◎

제 2 독서 : 야고 1,17-18.21-22.27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 마르 7,1-8.14-15.21-23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말씀의 이삭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는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이고,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음시간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이 체험되고 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그런 기쁨과 찬미가 시작되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허구나 관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심행위나 전례참석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미움도 가지지 않고, 욕심도 줄어들지 않고, 시기나 질투, 남 욕하는 것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청결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데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부정을 벗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피부병 환자나 나병환자도 부정하고,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과 그릇도 부정하고, 심지어 이방인이 밟았던 땅을 밟아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녀왔을 때에는 자신이 묻혀 온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몸 전체를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씻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씻어야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 깨끗한 물을 두 손에 받아 손을 자기 앞으로 들어 물이 손목까지 오게 했다가 손바닥을 주먹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채 손목에서 물을 부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만일 그렇

게 하지 않으면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전통과 형식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표현이나 형식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어 버리면 정말 중요한 내면적인 것을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보면 열심히 다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의 독선과 편협함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앙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외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의 계명인 사랑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마음의 계명, 삶의 계명을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정해집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열매 맺는 하느님의 사람이길 희망합니다. **말보다 침묵을, 방관보다는 활개찰을, 냉소보다는 미소**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사는 이유는,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하느님을 기쁘게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 너와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선적으로 살피주는 사랑을 살아야겠습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시간의 구분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년 · 월 · 일 · 시간 · 분** 등으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만일 시간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이나 반성,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도 시간의 구분이 있기에 가능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저자도 **날 수 셀 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시간,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이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속으로 봉헌하면서 기도으로써 건너어 낼 때, **오늘** 하루가 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어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들의 신앙

테르툴리아누스

테르툴리아누스는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적 인물이다. 교부학에서 아프리카 교회라고 할 때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리비아 북부 지역의 교회를 국한하여 지칭하며, 그 중심 도시는 카르타고였다. 이 지역은 기원전 2세기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에 나설 만큼 일찍부터 도시들이 번창하였다. 로마제국 시대에도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중요한 무역 상대가 되었다. 아프리카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로마교회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으며, 따라서 로마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마제국 어디서나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이 지역의 복음 전파의 속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197년에 쓴 [호교론] 1,6-7장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신자들은 팔복할 만큼 많다. 도회지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골 벽촌, 산간 지역, 섬들에도 많다.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치 폐허에서 소생하듯 남녀노소, 고위층의 사람들까지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보다 약 50년 후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 주교회의에 모인 주교들의 숫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252년 회의 42명이, 253년 회의에는 66명이, 256년 1차 회의에 71명, 그리고 2차 회의에 87명의 주교들이 모였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아프리카 교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세 신장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교회 안에서 일찍부터 라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 지역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에는 로마의 관리, 군인, 상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므로, 주로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라틴어 교회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80년에 저술된 [칠리움의 순교자 행전]인데,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지방 출신인 여섯 명의 순교자들이 카르타고에서 심문받고 참수된 기록이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가 19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라틴어로 저술하기 시작 하였으며, 치프리아누스 주교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은 250년경에야 라틴어 저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로마 교회에 비해 볼 때 50년 가량 앞선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 치프리아누스, 아르노비우스, 락탄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지는 아프리카 교회의 신학 주류는 로마교회의 신학을 능가할 만큼 뛰어났으며, 라틴 교회의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